

11~12월 중 충북지역 경제동향

2025.1

최근 충북경제는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하고 고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실물경기 지표가 저조한 데다 경제주체의 체감경기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나빠지면서 성장세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① **2024년 11월 중 충북 실물경기는 부진 흐름이 이어졌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 감소세가 이어진 가운데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였다. 다만 수출은 2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 제조업 생산 감소(-10.2%)에 전자부품(반도체 등)은 -5.6%p, 수출 증가(+3.3%)에 반도체는 +22.5%p 기여#

고성능 반도체(HBM)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는 패키징(임가공) 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물량 증가에는 영향이 제한적

- ② **11월 중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되며 9~10월에 비해 개선되었다.** 다만 취업자 수는 임시직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11월 중 충북지역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천명)

취업자 수	임금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비임금	자영업자
+13.3	+3.5	-6.1	+13.0	-3.4	+9.8	+9.2

- ③ **11월 중 주택가격은 보합 수준이 지속되었다. 12월 중 소비자물가는 1.9%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지난 8월 이후의 1%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

- ④ **12월 체감경기는 기업과 가계 심리 모두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상당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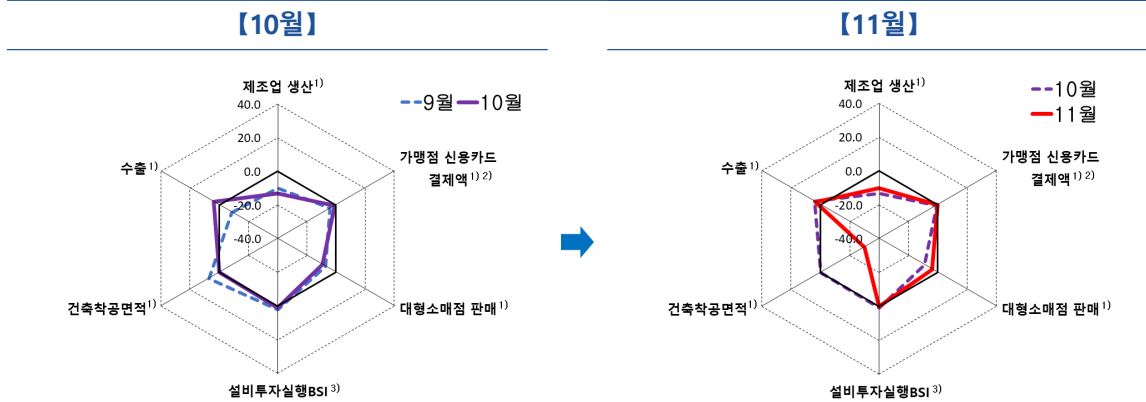
I. 11월 중 생산 및 수요 동향

1. 개황

실물경기는 부진 흐름 지속

1. 2024년 11월 중 충북지역 실물경기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였으나 수출은 2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충북지역 실물경기지표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 3) 장기 평균치(14.1~23.12월 94) 대비(p)

2. 생산

제조업 생산 감소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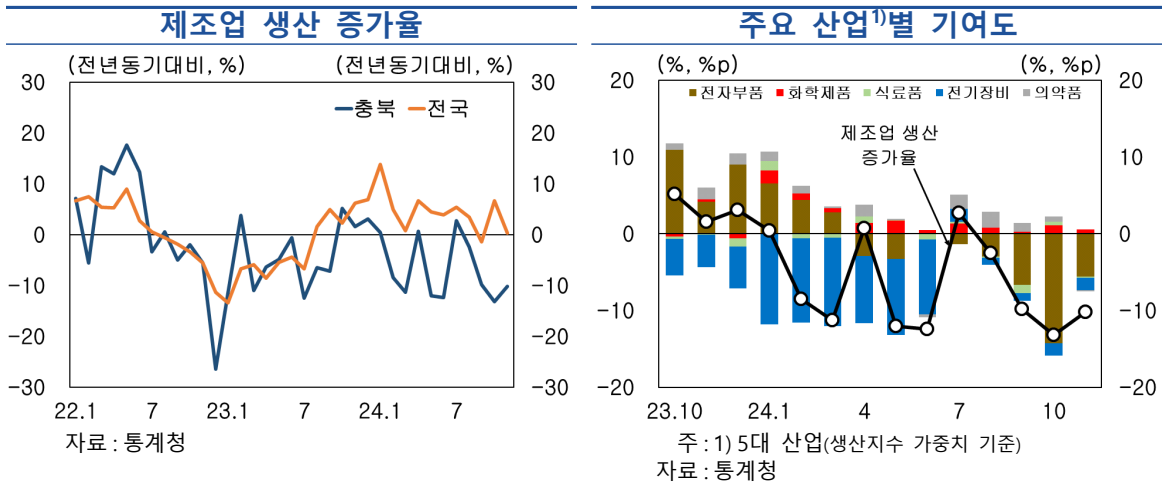
2. 2024년 11월 중 충북지역 제조업 생산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11월 중 충북 지역 제조업 생산은 지역 내 최대 주력업종인 전자부품(반도체 등)¹⁾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0.2% 감소하였다. 생산 감소세는 8월 이후 지속되었다(8월 중 -2.5% → 9월 중 -9.9% → 10월 중 -13.2% → 11월 중 -10.2%).

【전국】 11월 중 전국 제조업 생산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0.3%로 전월(+6.6%)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반도체 생산은 11.1% 증가하였다(10월 중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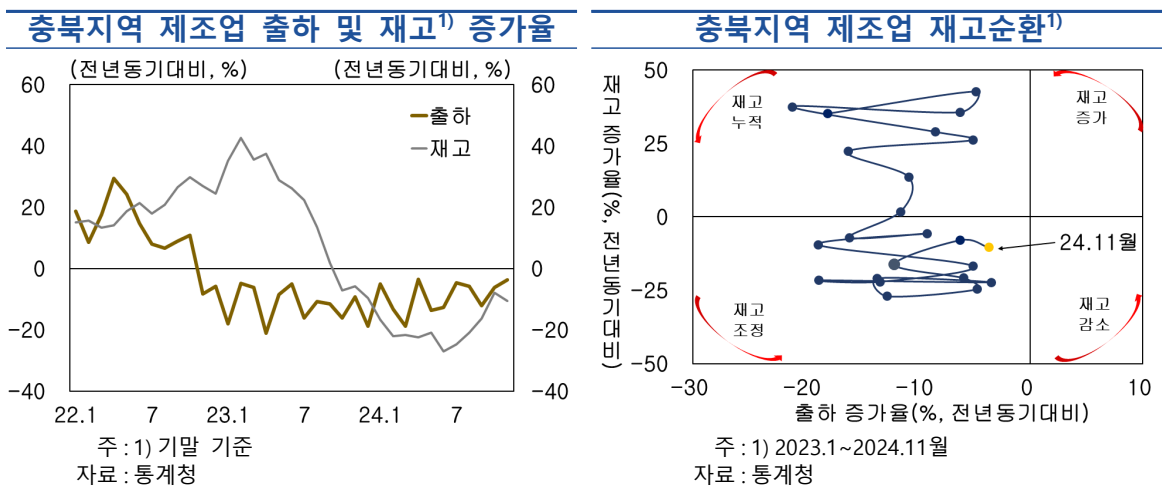
1) 11월 중 전자부품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21.1% 감소하였다.

2.1. 주요 산업²⁾별 기여도를 보면, 전자부품(기여도 -5.6%p), 전기장비(-1.6%p), 의약품(-0.2%p), 식료품(-0.1%p) 등은 생산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화학제품(+0.6%p)은 감소폭을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³⁾.

2.1.1. 5대 산업 이외에 기타 기계 및 장비(-1.6%p), 자동차 및 트레일러(-0.6%p) 등이 생산 감소 요인으로 나타났다.



3. 11월 중 충북지역 제조업 재고순환은 재고조정 국면에 있다. 제조업 출하(10월 중 -6.2% → 11월 중 -3.7%)는 2022년 11월 이후, 재고(10월말 -8.0% → 11월말 -10.5%)는 2023년 10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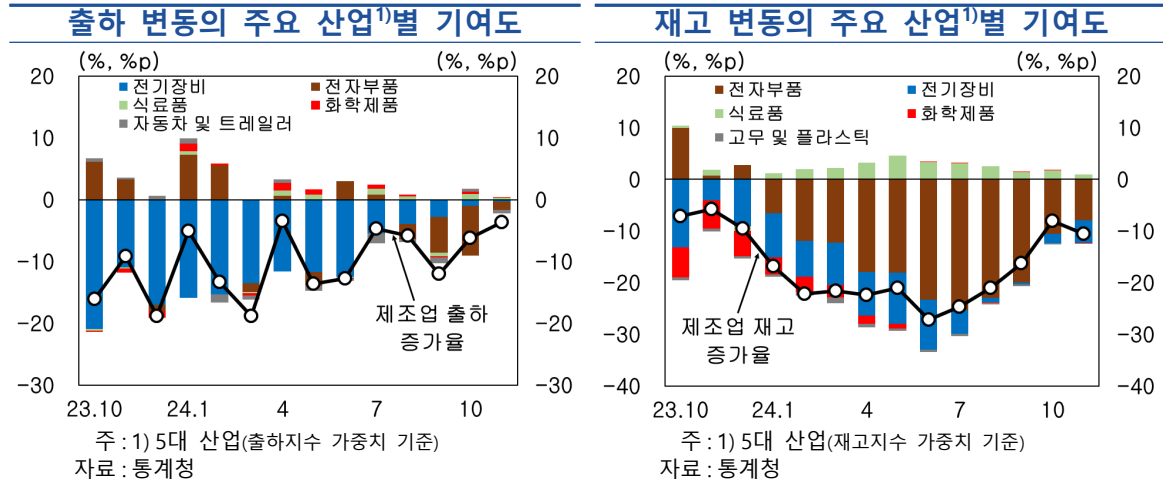


2) 제조업 내 업종별 가중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부품(23.0%, 비중), 2. 화학제품(12.7%), 3. 식료품(12.2%), 4. 전기장비(10.9%), 5. 의약품(9.7%), 6. 고무 및 플라스틱(5.3%), 7. 자동차 및 트레일러(4.2%), 8. 금속가공(3.5%), 9. 기타 기계 및 장비(3.5%), 10. 비금속광물(3.3%) 등이다.

3) 증가율로 보면, 화학제품(9월 중 +13.0% → 10월 중 +6.8%, 전년동기대비)이 증가하였으나 의약품(+6.1% → -1.3%), 식료품(+3.7% → -0.9%)이 감소로 전환하고 전자부품(-51.2% → -21.1%), 전기장비(-13.8% → -15.8%)는 감소세 지속되었다.

3.1. 11월 중 제조업 출하(-3.7%)는 전자부품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주요 산업별 기여도를 보면, 전자부품(기여도 -1.3%p), 자동차 및 트레일러(-0.6%p), 기타 기계 및 장비(-0.6%p) 등이 출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2. 제조업 재고(-10.5%)의 감소는 전자부품(기여도 -7.9%p), 전기장비(-4.4%)에 주로 기인한다.



서비스업 생산 감소폭 축소

4. 2024년 11월 중 충북지역 서비스업 생산은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11월 중 충북지역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⁴⁾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0.02%로 전월(-0.7%)보다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9월 중 감소로 전환된 이후 감소폭이 점차 축소되는 모습이다(8월 중 +2.4% → 9월 중 -3.9% → 10월 중 -0.7% → 11월 중 -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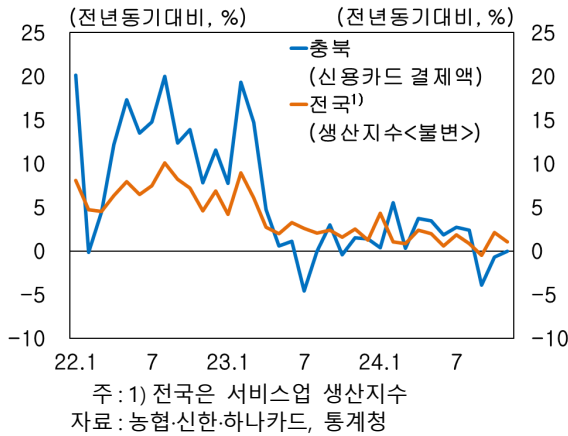
【전국】 11월 중 전국 서비스업 생산(불변지수)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1.0%로 전월(+2.1%)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4.1. 이는 도소매업의 매출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 업종⁵⁾별 기여도는 -1.3%p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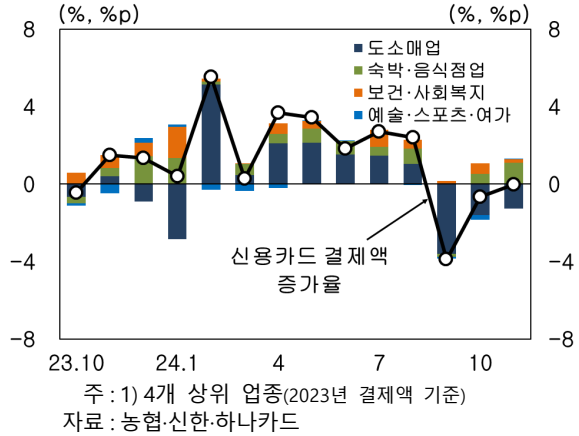
4) 국내 신용카드 3사(농협, 신한, 하나) 결제액 기준이다. 2019.1/4~2024.3/4분기 중 충북지역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가율(전년동기대비)과 역대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액 증가율 간의 상관계수는 0.92로 정(正)의 상관성이 매우 높다. 또한 2019.1~2024.11월 중 전국의 지표 간 상관계수도 0.87로 강한 정(正)의 상관성을 보였다.

5) 2023년 중 충북지역 가맹점의 신용카드 3사 결제액 중 주요 업종별 비중을 보면, 도소매업(52.4%), 숙박·음식점업(23.5%), 보건·사회복지(7.4%), 예술·스포츠·여가(4.0%) 등의 순이다. 동 업종의 서비스업 내 매출액(2022년) 비중은 각각 51.6%, 10.2%, 9.5%, 2.6%이다(통계청 「서비스업 조사」).

충북지역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



주요 업종¹⁾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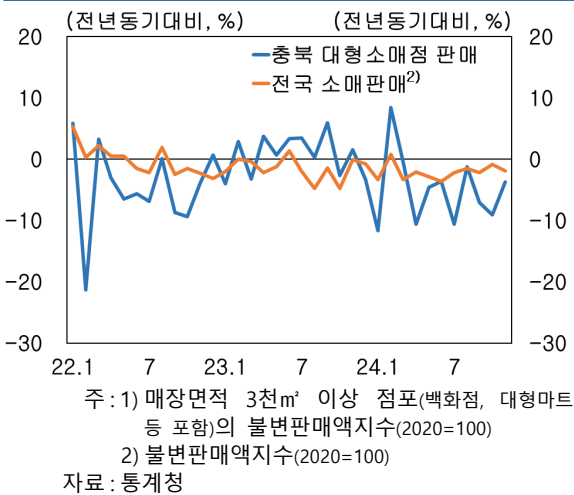
3. 요약

소비 부진 흐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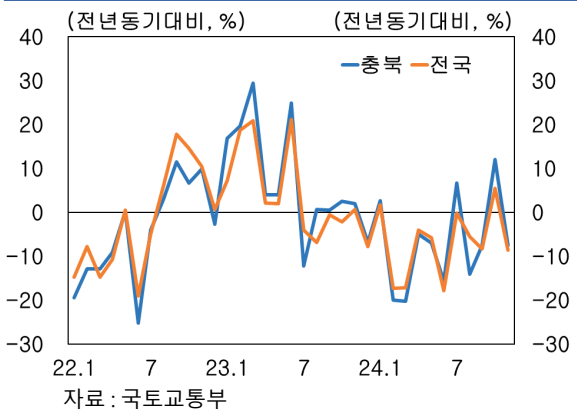
5. 2024년 11월 중 충북지역 소비는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었다. 11월 중 충북 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3.7% 줄어들며 전월(-9.1%)에 이어 감소하였다.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도 전년동기대비 7.5% 줄어들며 전월(+12.0%)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었다.

【전국】 11월 중 전국 소매판매(불변지수)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1.9%로 전월(-0.9%)보다 감소 폭이 확대되었고,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 증가율은 -8.5%로 전월(+5.5%)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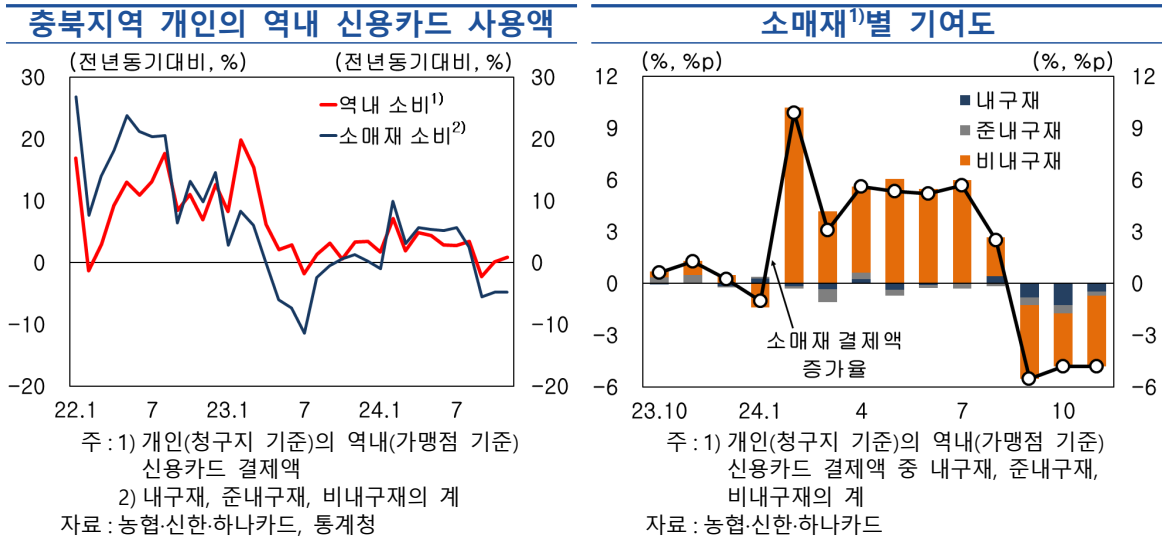
대형소매점¹⁾ 판매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



6. 신용카드 사용액 기준으로 개인의 역내 소매재 소비도 감소하였다. 11월 중 충북지역 개인의 역내 소매재 소비⁶⁾는 비내구재(기여도 -4.1%p)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4.8% 줄어들며 9월 감소 전환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다만 전체 역내 소비는 0.8%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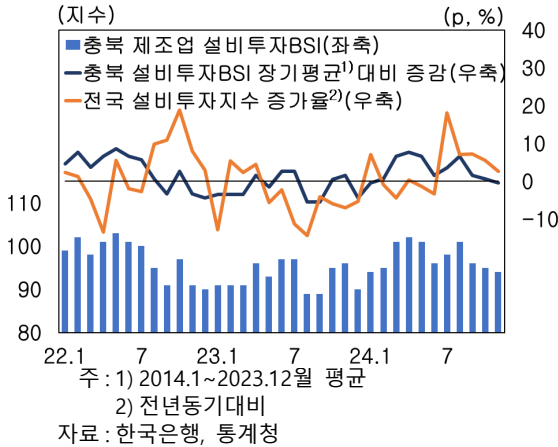
설비투자 개선 흐름 주춤

7. 2024년 11월 중 충북지역 설비투자는 개선 흐름이 주춤하였다. 11월 설비투자 실행BSI는 94로 전월(95)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금년 2월 이후 장기 평균치(94, 14.1~23.12월)를 상회하는 수준이 지속되다가 11월 들어 장기평균 수준으로 낮아졌다. 기계류 수입액도 전년동기대비 31.1% 줄어들며 전월(+9.0%)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산업기계(기여도 -19.9%p), 정밀기계(-5.7%p) 등이 주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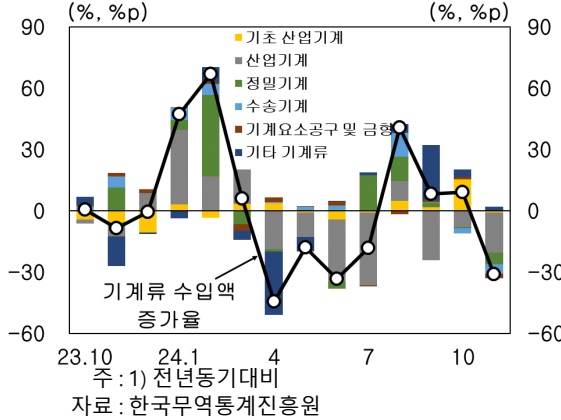
[전국] 11월 중 전국 설비투자(통계청 설비투자지수 기준)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6%로 전월(+5.5%)에 이어 증가하였다. 품목별로 기계류가 9.7% 증가하였으나 운송장비는 14.6% 감소하였다.

6) 국내 신용카드 3사(농협, 신한, 하나)의 결제 대금 청구지가 충북인 개인이 역내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 기준이다.

충북지역 설비투자실행BSI



충북 기계류 수입액¹⁾ 및 품목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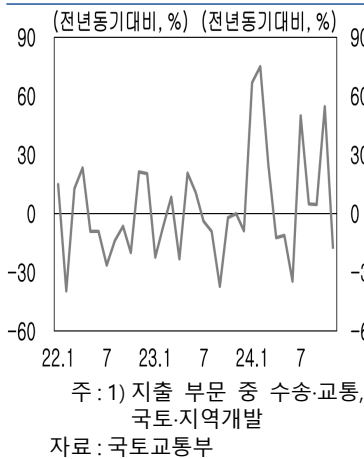


건설투자 부진

8. 11월 중 충북지역 건설투자는 부진하였다. 11월 중 SOC 관련 예산 지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7.4% 줄어들며 전월(+54.7%)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었다. 건축착공면적도 주거용(기여도 -43.9%p)을 중심으로 30.1% 줄어들며 전월(-0.1%)보다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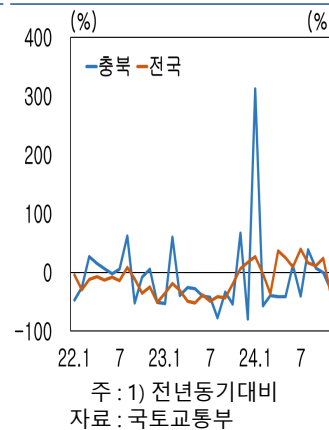
【전국】 11월 중 전국 건축착공면적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38.8%로 전월(+23.6%)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었다.

충북 SOC 관련¹⁾ 예산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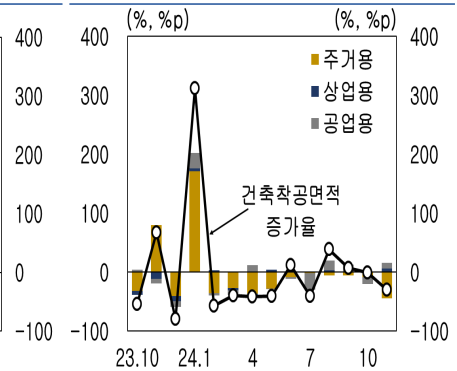


건축착공면적

【증가율¹⁾】



【충북 용도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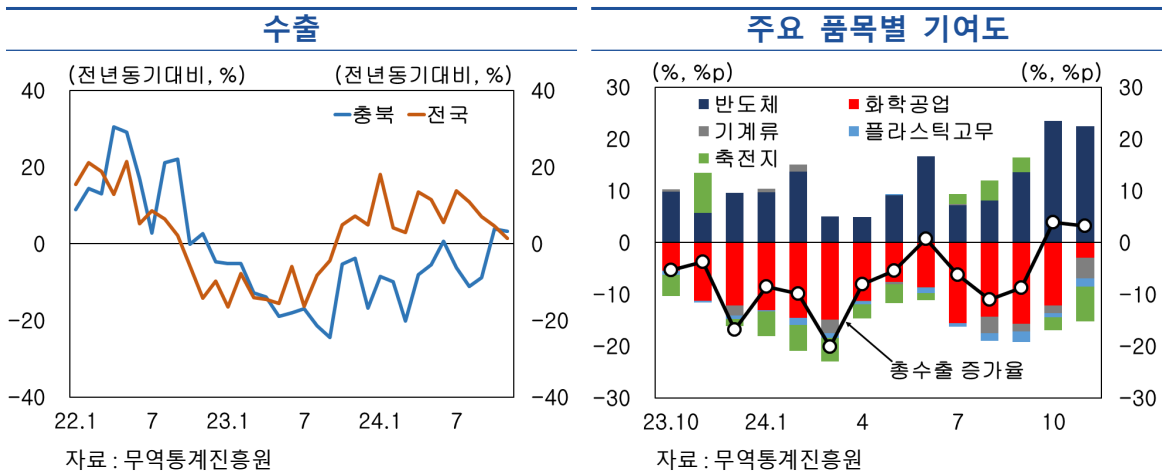


수출 증가

9. 2024년 11월 중 충북지역 수출은 증가하였다. 11월 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3% 늘어나며 전월(+4.0%)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2022년 10월 감소 전환 이후 26개월 만에 2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유지하였다.

【전국】 11월 중 전국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1.4%로 전월(+4.6%)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9.1. 주요 품목⁷⁾별 기여도를 보면, 수출 증가는 주로 반도체(기여도 +22.5%p)에 기인한다. 반면 축전지(-6.7%p), 기계류(-4.0%p), 화학공업(-2.9%p) 등은 증가폭을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9.2. 국가⁸⁾별로는 대만(기여도 +27.6%p), 말레이시아(+4.4%p) 등에 대한 수출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미국(-10.9%p), 중국(-6.6%p), 홍콩(-6.1%p) 등은 감소 요인이었다.

▶ 11월 중 충북 수출 증가율(+3.3%)에 대한 주요 국가별 기여도(%p)

중국	미국	홍콩	폴란드	베트남	대만	일본	헝가리	인도	말레이시아
-6.6	-10.9	-6.1	-3.4	0.4	27.6	-0.6	-0.2	-0.1	4.4

7) 2023년 중 충북 수출에서 반도체는 28.5%, 화학공업제품은 25.2%, 기계류는 11.3%, 축전지는 9.2%, 플라스틱고무제품은 6.0%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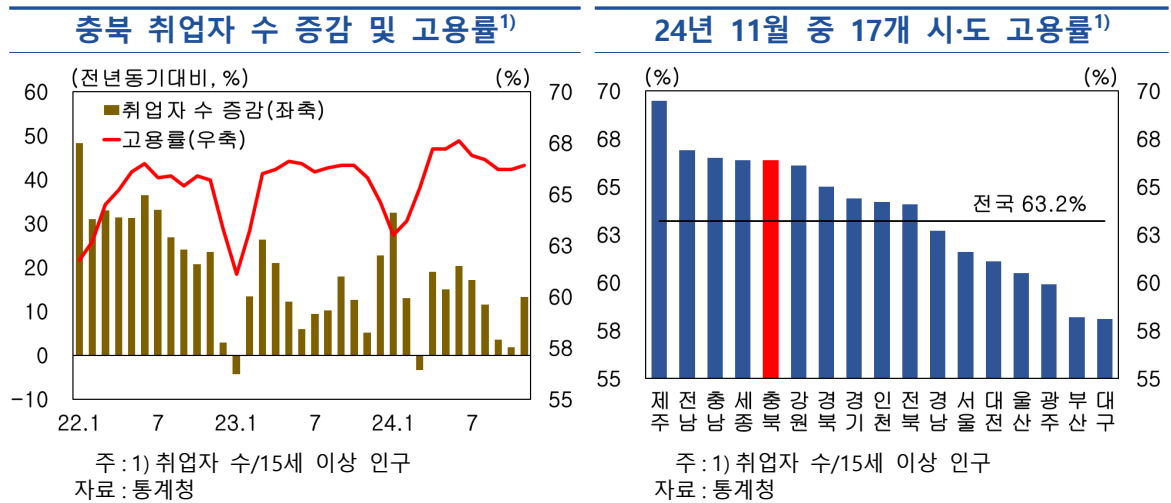
8) 충북 수출의 주요 대상국은 중국(2023년 비중 32.9%), 미국(23.5%), 홍콩(7.8%), 폴란드(4.7%), 베트남(4.6%), 대만(3.7%), 일본(3.6%), 헝가리(3.6%), 인도(1.4%), 말레이시아(1.1%) 등의 순이다.

Ⅱ. 11월 중 고용 동향

고용 개선 흐름 지속

10. 2024년 11월 중 충북지역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되며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11월 중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3.3천명 늘어나며 전월(+1.8천명)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11월 고용률도 66.4%로 전월(66.2%)보다 상승하였으며, 이는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국】 11월 중 전국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23.0천명 늘어나며 전월(+83.2천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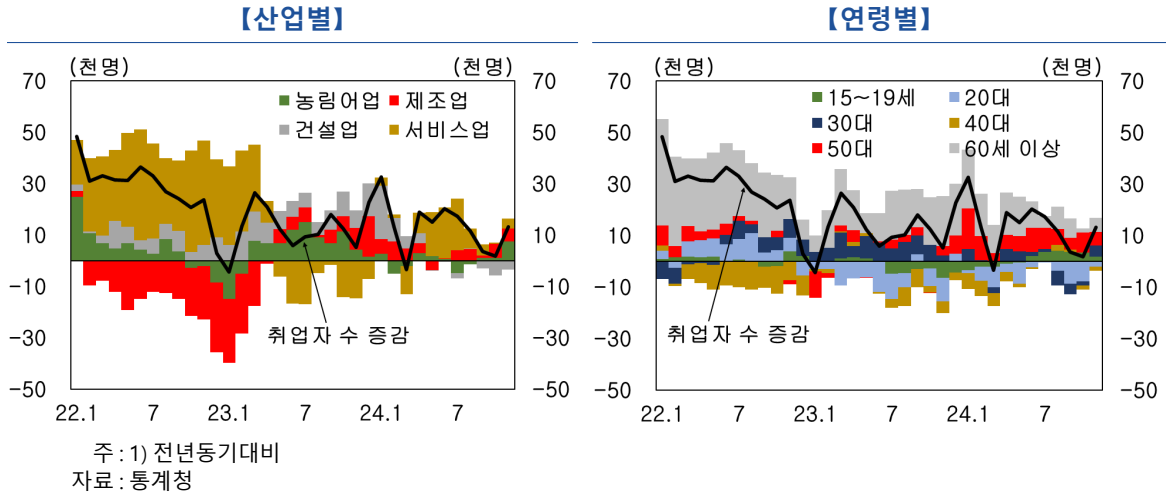


10.1.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증가하였다. 11월 중 산업별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은 7.4천명, 제조업은 5.1천명, 서비스업은 3.9천명 증가하였으나 건설업은 3.4천명 감소하였다..

10.1.1. 서비스업 중에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와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각각 4.1천명, 2.7천명 증가하였다. 반면 전기·운수·통신·금융은 2.9천명 감소하였다.

10.2.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50대, 30대에서 증가하였다. 11월 중 연령별 취업자 수는 60세 이상은 5.5천명, 50대는 5.2천명, 30대는 4.5천명 증가하였으나 20대는 2.2천명, 40대는 1.6천명 감소하였다.

충북 취업자 수 증감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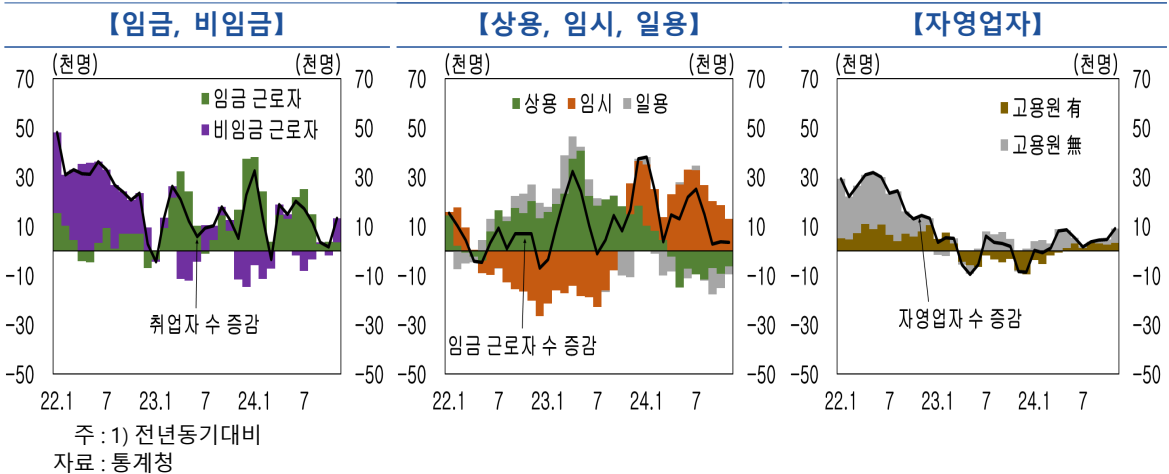


10.3. 종사자 지위별로는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 모두 늘었다. 11월 중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는 각각 3.5천명, 9.8천명 증가하였다.

10.3.1. 임금 근로자는 임시직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11월 중 임시직은 13.0천명 늘었으나 상용직은 6.1천명, 일용직은 3.4천명 줄었다.

10.3.2. 비임금 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9.2천명 증가하였다⁹⁾.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4천명, 없는 자영업자는 5.8천명 늘었다.

충북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¹⁾



9) 11월 중 비임금 근로자 중 무급가족 종사자는 0.5천명 증가하였다.

Ⅲ. 11월 중 주택가격 및 12월 중 소비자물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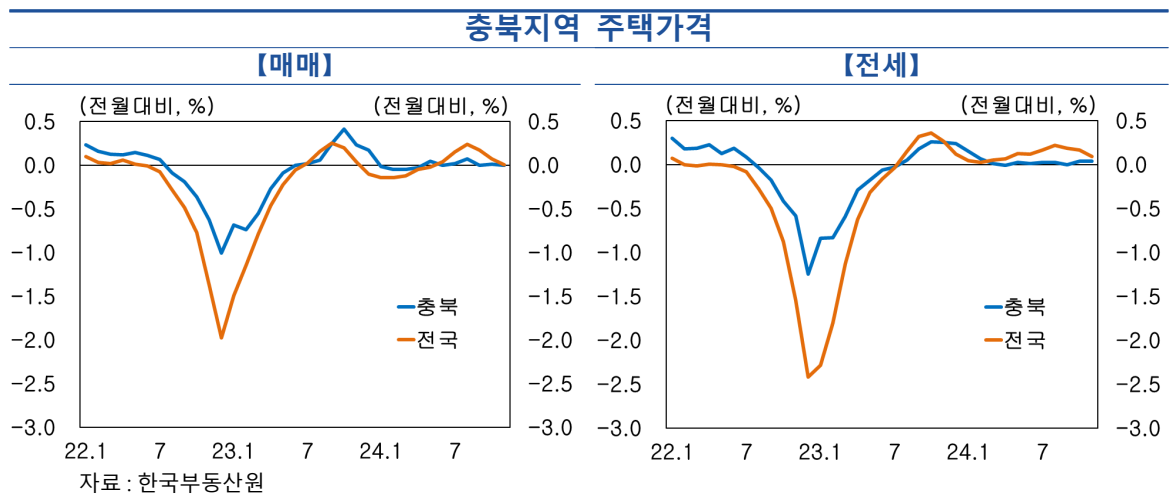
주택가격은 보합 수준 지속

11. 2024년 11월 중 충북지역 주택매매가격은 보합 수준(10월 중 +0.01% → 11월 중 -0.00%, 전월대비)이 지속되었다. 지역별로는 청주(+0.01% → +0.03%)는 오름폭이 확대되었으나 제천(+0.25% → -0.14%), 충주(-0.01% → -0.05%), 음성(-0.21% → -0.05%)은 하락하였다.

【전국】 11월 중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전월대비) +0.01%로 전월(+0.07%)보다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12. 전세가격(+0.04% → +0.04%)은 소폭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청주(+0.00% → +0.02%), 제천(+0.23% → +0.14%), 음성(+0.27% → +0.22%)은 올랐으나 충주(+0.07% → -0.02%)는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전국】 11월 중 전국 주택전세가격 상승률(전월대비) -0.09%로 전월(+0.16%)보다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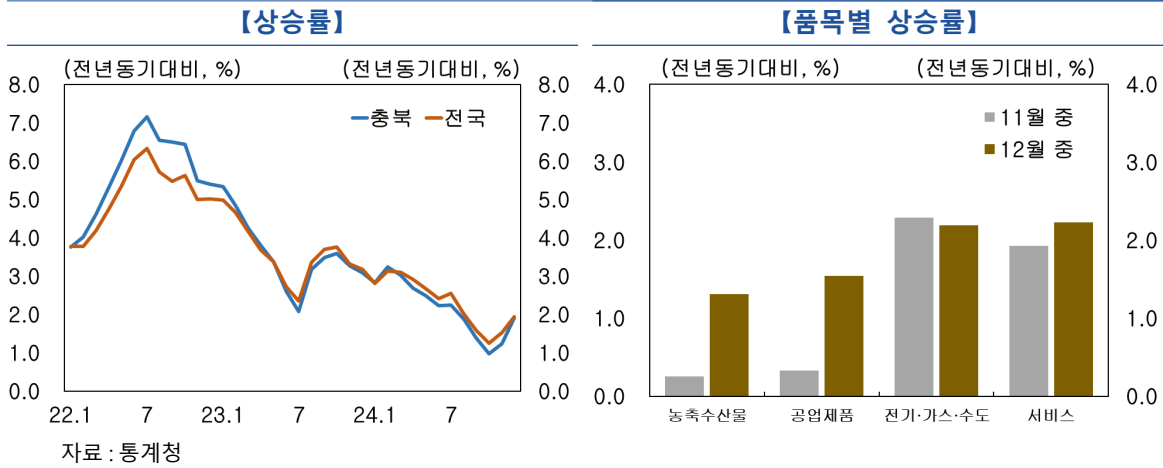
소비자물가 안정세 지속

13. 2024년 12월 중 충북지역 물가는 낮은 수준의 상승률이 지속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9% 올라 전월(+1.2%)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지난 8월 이후 1%대의 상승률을 유지하였다.

【전국】 12월 중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1.9%로 전월(+1.5%)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13.1. 물가 상승률이 소폭 확대된 것은 공업제품(11월 중 +0.3% → 12월 중 +1.5%, 전년동기대비)과 농축수산물(+0.3% → +1.3%) 가격의 상승폭 확대에 주로 기인한다. 전기·가스·수도(+2.3% → +2.2%), 서비스(+1.9% → 2.2%)는 전월과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다.

충북지역 소비자물가



13.1.1. 세부 품목별로 보면, 공업제품의 상승폭 확대는 가공식품(+1.9% → +3.0%)의 오름폭 확대와 석유류(-5.9% → +0.2%)의 상승 전환에 주로 기인한다. 내구재(+0.7% → +0.6%), 섬유제품(+1.7% → +1.7%), 의약품(+1.9% → +2.1%) 등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13.1.2. 농축수산물의 상승폭 확대는 축산물(+6.1% → +4.7%)의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농산물(-3.0% → -0.4%)과 수산물(-1.5% → -0.4%)의 하락폭 축소에 기인한다.

충북지역 세부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공업제품】	(전년동기대비, %)		【농축수산물】	(전년동기대비, %)	
	11월	12월		11월	12월
공업제품	+0.3	+1.5	농축수산물	+0.3	+1.3
가공식품	+1.9	+3.0	농산물	-3.0	-0.4
내구재	+0.7	+0.6	곡물	-0.2	+3.5
섬유제품	+1.7	+1.7	채소	+8.8	+8.7
출판물	+2.7	+2.7	과실	-18.0	-11.0
석유류	-5.9	+0.2	기타농산물	+5.4	+2.1
의약품	+1.9	+2.1	축산물	+6.1	+4.7
화장품	+4.8	+3.3	수산물	-1.5	-0.4
기타 공업제품	+1.2	+1.3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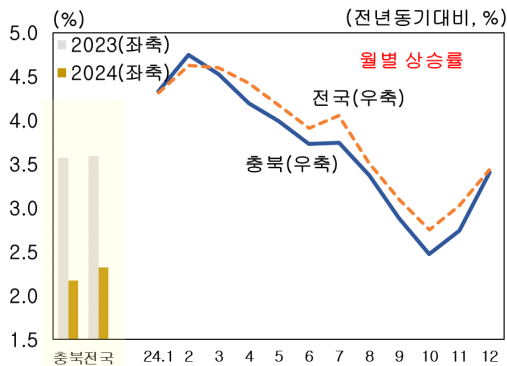
BOX 2024년 중 충북지역 소비자물가 동향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축소되며 물가안정 기반이 공고해지는 모습

1. **2024년 중 충북지역 소비자물가는 2.2% 올라 전년(+3.6%)보다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2월 이후 상승세가 빠르게 둔화되었으며, 8월부터는 1%대의 상승률을 유지하였다.
2.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공업제품, 전기·가스·수도, 서비스 가격의 상승폭은 축소되었다.
 - 2.1. **농축수산물가격(2023년 중 +2.6% → 2024년 중 +5.1%)은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농산물(+6.1% → +7.7%)이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오름폭이 확대된 데다 축산물(-3.5% → +2.5%)도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 2.2. **공업제품가격(+1.9% → +1.5%)은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글로벌 원유 수요 둔화 우려 등으로 석유류(-10.8% → -1.2%)의 하락세가 지속된 데다 내구재(+2.6% → +1.5%) 등도 낮은 수요압력으로 오름폭이 축소되었다.
 - 2.3. **전기·가스·수도(+20.2% → +2.9%)는 에너지 원자재가격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 2.4. **서비스(+3.7% → +2.2%)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집세(+1.0% → +0.4%), 공공서비스(+1.5% → +1.3%), 개인서비스(+5.5% → +2.8%) 모두 오름폭이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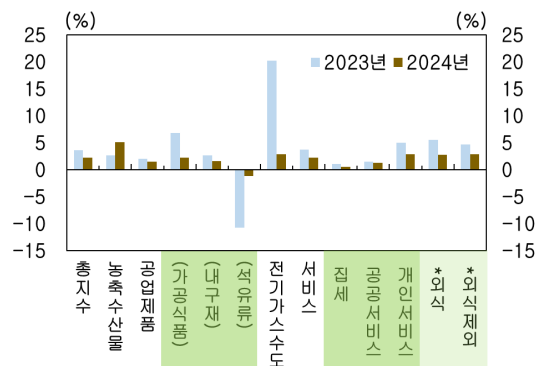
충북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통계청

【연중 품목별 상승률】



IV. 12월 체감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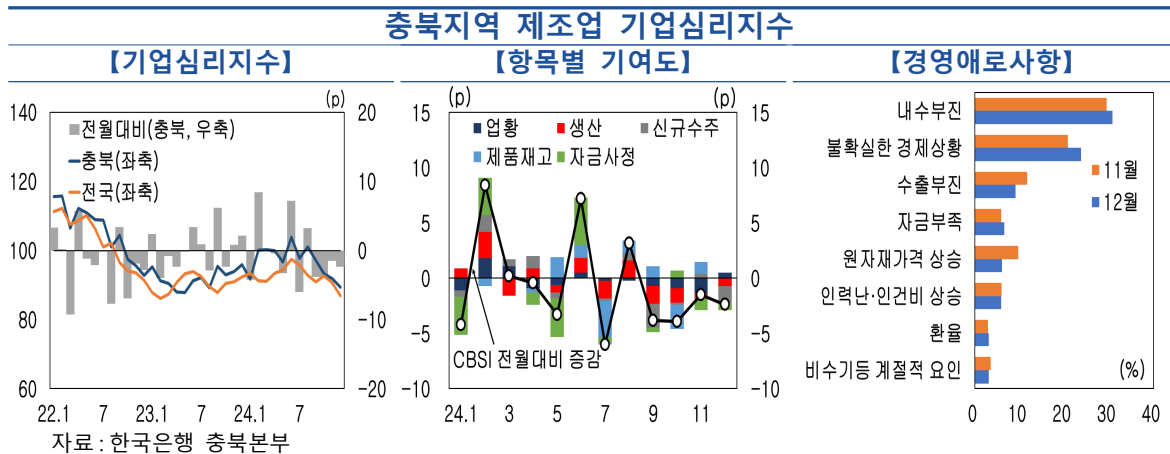
기업심리¹⁰⁾¹¹⁾는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악화

14. 2024년 12월 충청지역 제조업 기업심리는 9월 이후 악화되는 모습이다.

12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 Composite Business Sentiment Index)는 89.4로 전월(91.8)에 비해 2.4p 하락하였다. 업황(기여도 +0.5p)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신규수주(-1.5p), 자금사정(-0.7p), 생산(-0.7p) 등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전국】 12월 전국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86.9로 전월(92.6)에 비해 3.7p 하락하였다.

14.1. 제조업체들은 내수부진(30.8%)과 불확실한 경제상황(23.8%)을 주요 경영애로사항으로 보았다. 불확실한 경제상황, 내수부진, 자금부족 등은 전월보다 응답 비중이 상승(각각 +3.0%p, +1.3%p, +0.7%p)하였으나 원자재가격 상승, 수출부진 등은 비중이 하락(각각 -3.6%p, -2.6%p)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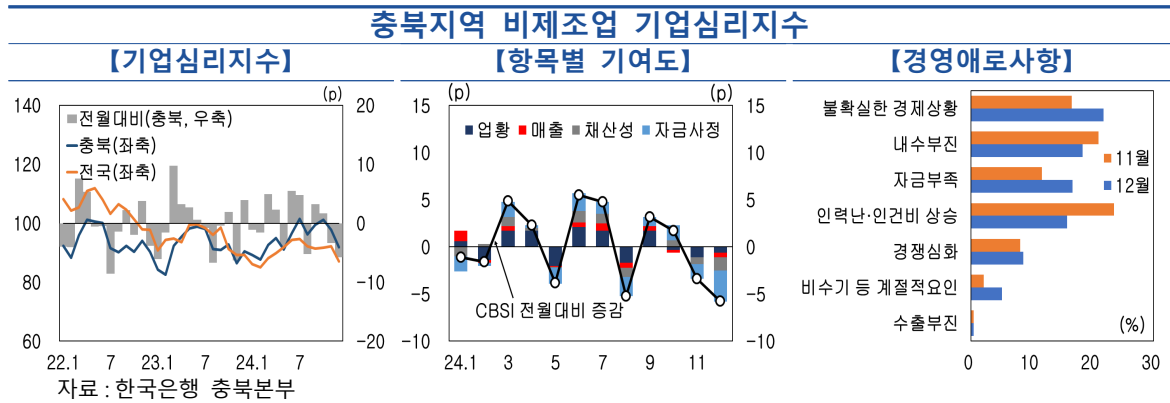
15. 비제조업 기업심리도 악화되었다. 12월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91.9로 전월(97.7)보다 5.8p 하락하였다. 주요 하락 요인은 자금사정(기여도 -3.3p)과 채산성(-1.4p)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2월 전국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87.1로 전월(92.1)보다 5.0p 하락하였다.

10) 한국은행 충청본부의 기업경기조사 결과이다. 12월 조사는 조사대상업체 456개 법인 중 423개 업체(제조업 215개, 비제조업 208개)가 응답하였다.

11) 기업심리지수(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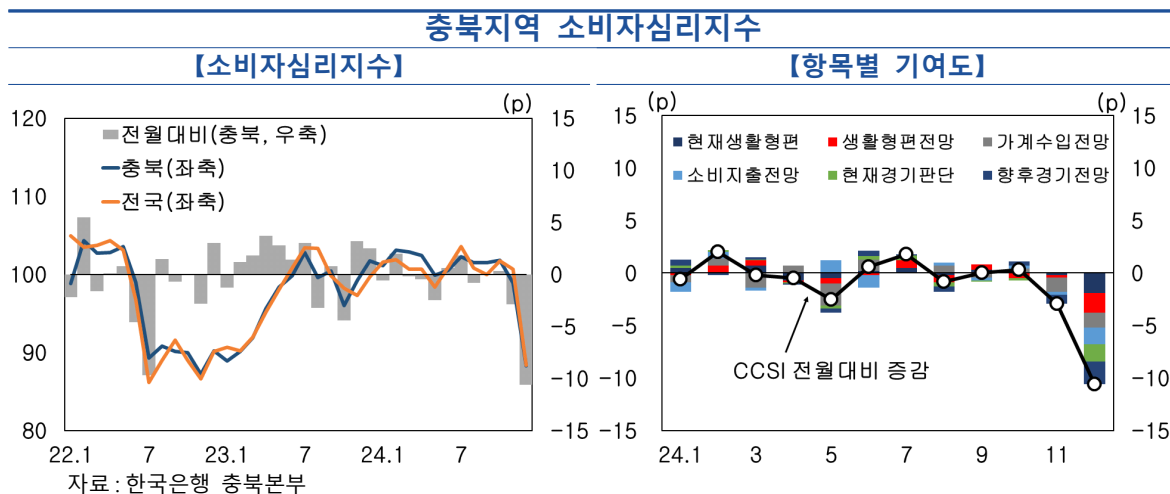
15.1. 비제조업체는 불확실한 경제상황(21.8%), 내수부진(18.4%), 자금부족(16.7%) 등을 주요 경영애로사항으로 보았다. 불확실한 경제상황, 자금부족 등은 전월보다 응답 비중이 상승(각각 +5.2%p, +5.0%p)하였으나 인력난·인건비 상승, 내수부진 등은 비중이 하락(각각 -7.7%p, -2.6%p)하였다.



소비자 심리¹²⁾¹³⁾ 악화

16. 2024년 12월 충북지역 거주 소비자들의 심리지수는 크게 악화되었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 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는 88.3으로 전월(98.9)보다 10.6p 하락하며 팬데믹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향후경기전망(기여도 -2.2p), 현재생활형편(-1.9p), 생활형편전망(-1.9p) 등 모든 구성 지수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전국】 12월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월(100.7)보다 12.3p 하락하였다.



12)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이다. 12월 조사는 충북지역 3개 도시(청주, 충주, 제천) 조사 대상 400가구 중 369가구가 응답하였다.

13)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 평균치(2003년 1월 ~ 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V.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24.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제조업 생산	-12.1	-12.4	2.7	-2.5	-9.9	-13.2	-10.2	..	
	제조업 출하	-13.6	-12.7	-4.7	-5.9	-12.1	-6.2	-3.7	..	
	제조업 재고	-21.0	-27.1	-24.7	-21.0	-16.3	-8.0	-10.5	..	
	가맹점 신용카드 매출 ¹⁾	3.5	1.7	2.7	2.4	-3.9	-0.7	0.0	..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	-4.6	-3.6	-10.6	-1.2	-7.1	-9.1	-3.7	..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	-7.0	-15.8	6.6	-14.1	-7.6	12.0	-7.5	..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¹⁾²⁾	4.4	2.9	2.7	3.4	-2.3	0.1	0.8	..	
투자	설비투자실행BSI ³⁾	7.0	2.0	4.0	7.0	2.0	1.0	0.0	..	
	기계류 수입액	-18.0	-33.2	-18.1	40.8	8.2	9.0	-31.1	..	
	건축착공면적	-40.8	12.3	-40.2	38.6	7.1	-0.1	-30.1	..	
	SOC 예산 지출액 ⁴⁾	-14.7	-34.5	49.8	4.9	4.8	54.7	-17.4	..	
수출	수출	-5.4	0.7	-6.2	-11.0	-8.7	4.0	3.3	..	
고용	취업자 수 증감 ⁵⁾	15.0	20.3	17.2	11.6	3.6	1.8	13.3	..	
	산업별	농림어업	1.8	0.6	-4.9	-1.3	1.2	1.2	7.4	..
		제조업	-3.7	0.3	4.1	4.5	0.9	5.4	5.1	..
		건설업	-0.2	-0.5	-2.0	0.3	-2.9	-5.7	-3.4	..
		서비스업	17	19.8	20.1	7.8	4.2	0.5	3.9	..
	연령별	15~19세	-0.5	2.1	3.7	4.1	3.6	3.4	1.7	..
		20대	-8.3	-2.4	-0.4	-3.8	-8.8	-7.8	-2.2	..
		30대	3.9	1.6	1.1	-5.7	-4.1	-1.5	4.5	..
		40대	-1.2	-0.7	0.0	2.3	1.0	-1.8	-1.6	..
		50대	5.8	9.2	8.2	6.1	4.5	7.7	5.2	..
	60세 이상	15.3	10.4	4.5	8.7	7.5	1.7	5.5	..	
	종사자지위별	임금 근로자	13.1	22	25.2	14.9	2.9	3.7	3.5	..
		(상용)	-14.9	-7.1	-9.5	-11.5	-6.9	-9.3	-6.1	..
		(임시)	27.0	33.1	32.9	26.8	20.4	18.7	13.0	..
		(일용)	0.9	-4.0	1.9	-0.4	-10.6	-5.8	-3.4	..
		비임금 근로자	1.9	-1.8	-8.0	-3.3	0.7	-1.9	9.8	..
		(자영업자)	8.6	5.4	1.8	3.8	4.5	4.7	9.2	..
<고용원 有>		1.3	3.0	1.2	3.3	3.0	2.6	3.4	..	
<고용원 無>		7.2	2.4	0.7	0.5	1.5	2.2	5.8	..	
(무급가족종사자)	-6.7	-7.1	-9.9	-7.1	-3.7	-6.5	0.5	..		
고용률 ⁶⁾	67.2	67.6	66.9	66.7	66.2	66.2	66.4	..		
주택가격	주택매매가격 ⁷⁾	0.04	-0.01	0.02	0.07	0.00	0.01	0.00	..	
	주택전세가격 ⁷⁾	0.02	0.01	0.02	0.02	0.00	0.04	0.04	..	
물가	소비자물가	2.5	2.2	2.2	1.9	1.4	1.0	1.2	1.9	
체감경기	제조업 기업심리지수 ⁶⁾	96.6	103.8	97.8	101.0	97.2	93.3	91.8	89.4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 ⁶⁾	91.1	96.6	101.4	96.2	99.4	101.1	97.7	91.9	
	소비자심리지수 ⁶⁾	99.9	100.5	102.3	101.5	101.5	101.8	98.9	88.3	

주 : 1) 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 2) 역내 소비 기준 3) 장기 평균(94) 대비, 단위 : p 4) 지출 부문 중 수송·교통, 국토·지역개발 5) 단위 : 천명 6) 당월 지표 7) 전월대비